

“불교대학·불교대학원 비전선포식 및 동문의 밤” 축사

“불교대학·불교대학원 비전선포식 및 동문의 밤”을 축하합니다. 무엇보다도 불교대학의 위상과 현실, 과제와 도전에 대하여 내부구성원인 불교대학의 여러 교수님, 그리고 동문들의 고뇌와 의지가 총 결집되어서 이 자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자 합니다. 한결같은 진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교대학 구성원들의 의지를 수렴하여, 발전의지를 비전으로 승화하면서 “동국불교센터”의 건립불사를 추인하고 이끌어주시는 이사장 정런스님과 김희옥 총장님을 비롯한 법인 이사회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종단은 불교의 현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도전과 과제로 가득 차 있음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이곳저곳에서 살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그로 인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변동양상도 극심합니다. 그 어떤 변화도 불교의 입지에는 결코 유리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현대인들은 불교에 대한 기대와 요구의 눈높이를 결코 낮추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종단 역시 누구보다도 먼저 이러한 위기 앞에서 불교의 앞날을 모색하기 위하여 고뇌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단은 “자성과 쇄신 결사”를 제언하고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만을 되뇌고 선대 조사들의 공덕에만 의지해서는 안되겠다는 의미였기에, 이는 결코 종단이나 사찰이나 신도들만의 문제에 국한하는 것은 아니라 하겠습니다. 개교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불교대학과 불교대학원이 학교는 물론 종단의 발전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적이 적지 않지만, 오늘의 현실을 볼 때 지나온 길을 되짚어 보고 다가올 내일을 미리 준비하여 과감히 변화하고 실천해야 하는 일이 절실하기도 합니다.

학계 안에서도 이제 불교학은 동국대에서만 연구하거나 교육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종립대학들도 있고, 국공립의 다른 대학들에서도 불교를 연구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근래 들어서 그러한 도전이 격렬해지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글로벌 시대입니다. 오늘 비전의 하나로 제시되듯이 불교학은 국제적 선진화가 필수적으로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불교의 세계화वाद과 맞물리는 과제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불교대학의 현실을 헤아려 볼 때, 불교대학과 불교대학원 역시 나름의 “자성과 쇄신 결사”가 요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부응이 하드웨어(Hardware)적으로는 “동국불교센터”의 건립이며, 소프트웨어(Software)적으로는 ‘불교학의 선진화’ 등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대덕스님과 불자님, 그리고 동문 여러분, 개교 108년을 앞두고 불교대학 구성원들이 하나로 화합하여 발원하는 이 거룩한 불사가 원만히 회향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불교대학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역할을 다하여 세계 속에 한국불교와 동국대학을 큰 문이 되어주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종단 역시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약속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기를 발원합니다.

불기2557년 11월 26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합장